

백조인 자신을 오리로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미운 오리새끼들
박선영 글
돌 스튜디오 그림
참글어린이 펴냄
1만원

누나 지은이와 동생 지환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더 이상 밭일을 할 수 없게 된 할머니는 절 공양간 일을 보기로 하고 두 손자들과 절 옆집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할머니 몸이 더 안 좋아져서 힘들어졌다. 할머니 대신 공양간 설거지를 하고 나온 지은이는 법당에 들어가 앉았다. 자꾸만 한숨이 나온다. 책은 초등학생의 자식을 둔 엄마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로 엮은 단편 12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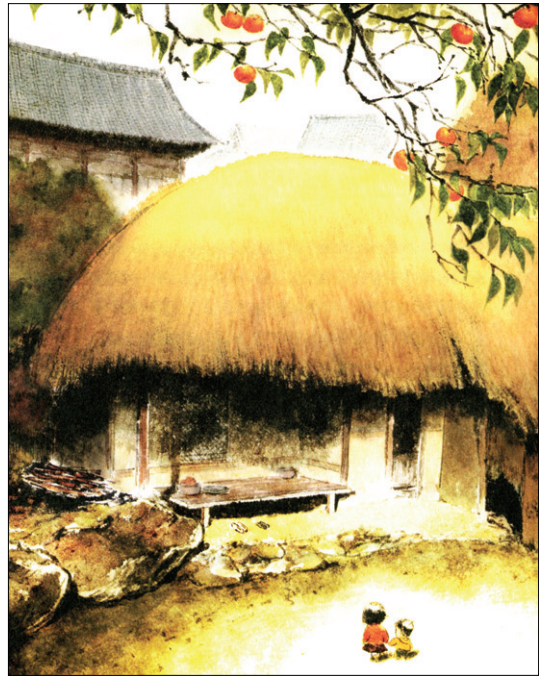
엄마는 출산 후에도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맡기고 직장에 다니고, 엄마의 정이 한참 필요한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유아기를 보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야 한다. 자아 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의지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다.

도서출판 '참글세상'은 부처님의 말씀을 교재로 삼아 현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만들어 아이들의 행복을 모색해 보는 계획을 세웠다.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도서출판 참글세상은 어린이전문 출판사 '참글 어린이'를 세

우고 어린이들의 인성을 키워줄 책을 계획했다. 그 첫 번째 책이 《미운 오리새끼들》이다.

법당에 앉은 지은이가 한숨을 쉬는 이유는 내일이 답입선생님 생일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반 아이들 모두를 초대했다. 선생님은 선물을 사절한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 선물 이야기만 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이는 걱정이다. 회장 선주는 모아놓은 용돈으로 머리핀을 사겠다고 했고, 반에서 집이 제일 부자인 경우는 아빠가 백화점 상품권을 사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은이와 단짝인 나은이는 엄마가 추천해준 책을 사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은이는 얼마 전 어버이날에 돼지저금통을 뜯어서 그 돈으로 할머니한테 드립 카네이션을 샀다. 법당에 앉아 부처님을 보고 있자니 지은이는 눈물이 난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걸까. 엄마 아빠 없어도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리고 지환이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너무나 가난한 것이 속상하다. 울고 있던 지은이는 법당 구석에서 초파일에 만들고 남은 연등 재료를 보게 된다. 지은이는 선생님에게 연등을 선물하기로 생각한다. 그리고 스님의 도움을 받아 예쁜 연등을 만들어 다음날 선생님에게 선물한다. 지은이의 선물을 받은 선생님은 목이 잡겼다. 선생님이 케익의 촛불대신 연등에 불을 밝히자 아이들은 '스승의 은혜'를 부르기 시작했다. 서른일곱 명의 아이들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진다. 연등의 불빛을 타고 노래는 멀리멀리 퍼졌다. 언제나 꺼지지 않을 것처럼.

가난한 여인 난다의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갈망질판한다. 열 두 편의 동화를 삽화와 함께 엮은 책은 한 편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뒤에 비슷한 사례의 부처님 이야기를 이어간다. 책을 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편 삽화

엄마가 바라본 아이들 이야기 12편 어른들 아이 손에 동화책 들려줘야

은 아이에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기 위해서다. 선생님의 생일 선물로 손수 만든 연등을 선물한 지은이의 이야기 끝에 부처님 당시의 가난했던 여인 난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난다는 어렵게 등 하나를 겨우 달게 된다. '밤이 깊어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밝힌 등불이 하나 둘 꺼져 갔지요. 그런데 단 하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이 정성을 다해 켜 둔 등불이어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다른 돈 많은 사람이나 지위 높은 사람들의 등불보다 가난한 여인 난다의 등불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새끼'처럼 백조인 자신을 오리로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도 알고 보면 모두가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작가는 격려한다.

2013년 5월 국제아동지표학회 소속 10개국 연구진이 세계 처음으로 국제어린이 행복종합지수를 발표했다.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국제행복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90.3점을 얻어 이번 조사 대상 8개국 중 7위에 그쳤다. 1인당 GDP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알제리(6위 · 99.5점)보다 순위가 낮았다. 경제력이 한국의 40분의 1에 불과한 우간다(8위 · 80.9 점)를 앞질러 최하위를 면했을 뿐이다. 한국 어린이는 관찮은 옷, 개인 컴퓨터, 인터넷 접근권, 휴대전화의 4가지 품목 중 평균 3.83개를 가져 가난한 나라인 알제리의 2배, 우간다의 4배가 넘는다. 하지만 한국 어린이는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는 상당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12편의 동화가 위의 지수를 한 순간에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나 인터넷, 게임 등 성인들과 거의 비슷한 문화와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 어린이들에게 '책'은, 그것도 '동화책'은 눈길을 끌기 쉽지 않다. 책은 짧은 동화 한 편을 통해 아이들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책을 아이들의 손에 들려줘야 하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삼교(유·불·선)의 회통은 불가능한 것인가

복송 초기의 삼교회통론

김경수 지음 | 예문서원 펴냄 | 2만6천원



동양철학의 3대 중심축인 유교와 불교와 도교의 삼교 교섭사를 통하여 인간 지성의 구조와 자아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길을 철학적으로 살펴본 연구다.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 삼교는 오랜 세월 동안 동아시아 사상의 중심으로, 민중의 생활을 지배해온 이념들이다. 전한시대부터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한 유교는 통치계급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인의 사유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미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후한시대에 인도로부터 유입된 불교는 힘겨운 토착화의 과정을 겪으며 수당시기에 이르러 출가한 지식인을 기반으로 중국불교로 거듭났다. 후한 말기 민중 속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종교인 도교 또한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장생 불사를 꿈꾸는 복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으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삼교는 근원적으로 이질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왕조의 흥망성쇠를 따라 지지와 탄압이 거듭되었다. 또한 각 종교는 내부적으로 겪어야 했던 갈등의 요소들로 인해 어려웠고, 다른 종교와의 사이에서 겪는 갈등으로 어려웠다. 종교의 화해와 공존, 더 나아가 회통은 불가능한 것인가? 물론 역사 속에서도 단편적으로 그런 사례는 있어왔고, 오늘날에도 일부 종교인들은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드물게 삼교의 정립이 이루어진 시기가 있었으니 바로 복송 초기였다. 복송은 문치주의를 채택하여 학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당시 대중화되기 시작한 인쇄술을 바탕으로 삼교의 경전들을 전집 형태로 간행하여 널리 보급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춘추전국기의 제자백가를 능가할 정도로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그야말로 학문의 최대 융성기를 누렸으며, 한편에서는 성리학이 막 태동하고 있었다. 이 당시 삼교는 서로 비판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상호 화통적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책은 그 화해의 움직임의 대표적인 인물로 인식되어온 불교의 계승 선사와 도교의 장백단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계승의 삼교회통론이 그것이고, 장백단의 삼교 귀일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삼교회통론은 서로 뚜렷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계승은 유교와 불교를 주로 비교하여 그 가르침은 서로 같은 부분이 많지만 결국은 불교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장백단은 도교와 선불교는 각각 명(命)과 성(性)을 바탕으로 수련하는 것임을 말하면서 자신의 내단 이론에서는 이를 초월하는 도교적 경지를 구했다. 이러한 두 사람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으로 이루어진 삼교교섭사에서 전례 없었던 화합과 회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2 ~ 6/1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뒤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웅화
3	살아는 모든 산을 개벽으로 바꾸는 탁발한 명상	탁발한	불광출판사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쌤앤파크스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민족사
7	그런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8	살이 깊은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9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공리
10	명상에 답이 있다	정현갑	담앤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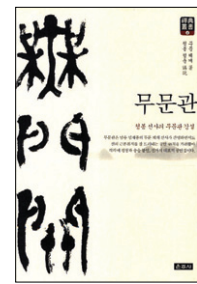
※ 불서출판사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문관

무문에게 지음 | 청봉청운 강설 | 운주사 펴냄 | 1만3천원



조주 선사에게 어떤 승이 문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조주 선사가 “없다(無)” 했다. 책은 무문 해개 선사의 《무문관》 강설이다. 만공월면 선사로부터 법을 받은 덕숭산 해암 현문 선사의 전법 제자인 청봉 청운 선사의 강설이다.

“선을 배우는 데는 수행자가 우선 설치한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묘한 깨달음에 이르는 데는 분별심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고 분별심을 단절하는 체험이 없는 자는 초목에 사는 정제 없는 유령과 같은 것이다.” 무문 선사의 평창이다. 계승이 이어진다. “개의 불성이여 / 울바른 범령을 그대로 전체를 내보였도다. / 유무의 두 견해로 견네면 / 몸 잃고

목숨 잃게 되니라.”

청봉 선사의 ‘문’과 ‘착어’가 이어진다. “자! 누가 일러보시오. 어째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조주 선사는 ‘없다’ 라고 했는가?” “달이 달을 삼켰도다.”

《무문관》은 남송 임제종의 무문 해개 선사가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수많은 고칙공안(古則公案) 중에서 간명하면서도 선의 근본 취지를 잘 드러내는 공안 48칙을 가려뽑아 각각에 평창과 송을 붙인, 선가의 대표적 공안집이다.

책은 청봉 선사가 《무문관》을 우리말로 옮긴은 물론, 자신의 살림살이인 ‘문’과 ‘착어’를 통해 간화선의 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무문 해개 선사는 중국 간화선의 대성자인 오조 법연(?~1104)의 6대 법손으로서 공안 중 가장 유명한 ‘조주무자’를 시작으로 48칙의 공안을 모았다. 그 형식은 본칙을 제시하고, 본칙에 대한 평가인 평창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계승으로 거듭 그 뜻을 드러내는 송(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송 때인 1228년(소정1)에 간행되었고, 1245년

에 중간된 이래 1405년 일본에서 간행되는 등 수차례 간행되었다.

책을 강설한 청봉 청운 스님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출가했지만 뛰어난 선기로 수덕사 초대 방장 해암 선사의 전법인가를 받았다.

물론 그 이전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불가와 맺은 지중한 인연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출가 이후 투철한 수행을 통해 자신을 가다듬은 후 본격적인 대중 화를 시작, 전국 각지에서 출, 재가자를 가리지 않고 공부인들을 제정했다.

유교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책은 청봉 청운 선사가 강설한 원고에 문도회에서 간단한 각주와 원문을 붙여 편집했다. 원문에 대한 알기 쉬운 우리말 번역도 이 책의 장점이지만,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각 공안마다 말미에 청봉 선사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청봉선사 문’과 ‘청봉선사 착어’에 있다. 청봉 선사의 번역하는 선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과 ‘착어’는 《무문관》에 대한 단순한 문자 이해를 넘어서는, 간화선의 본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방’이자 ‘할’이다. 그 간결한 문답 속에 내재한 간절함과 투철함은 공부인들에게 간화선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박재원 기자**

불교음반총판 운주사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음반

오쇼 라즈니쉬 제자로 전세계 명상음악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데바 프레말!**

현재 요가원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요가/명상/불교/힐링음악 베스트 셀러**

“동양적인 감성 / 치유의 목소리와 첸팅 / 명상적인 가사는 듣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정화와 치유의 효과가 있다!”

현존 영적 지도자중 1위에 선정된 에크하르트 톨레, 유명 여가수 쉐어, 달라이 라마의 극찬

티베트 만트라(Tibetan Mantras) 앨범
(I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예법인이 지음발성의 귀토승원 스님들과 함께한 티베트의 대표적인 8개 만트라 명상음악 앨범

다క్ష이나(Dakshina) 앨범
(I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시바 등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주들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만트라 첸팅 공양 앨범. 전세계 40만장 이상 판매된 최고 베스트 & 스테디 셀러작

에센스(Essence) 앨범
(I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전세계 명상음악계에 돌풍을 일으킨 앨범. 요가명상음악만은 보기 드물게 100만장 이상 판매된 최고 베스트 & 스테디 셀러작

불안정한 시대를 위한 만트라 (Mantra for Precarious Times) 앨범
(I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장애소멸/평화/자유/기쁨/지복/해탈/사랑을 주는 7개의 인도전통 만트라를 영송한 요가명상음악 앨범

귀의(Embrace) 앨범
(I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발매)

뉴에이지 음악계의 거장 기따로를 비롯, 내노라하는 동서양 유명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한 베스트 셀러작

구입처 : 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통일하이빌 B1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